

日, 漁港多目的 利用施設 정비

日本水産庁은 1988년도 水産예산概算요구액 3,280억엔에 포함되는 NTT 사업이외의 NTT 프로젝트로서 ① 어항多目的이용 시설장비 프로젝트 ② 어촌再開發 해안정비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앞으로 大藏省과 절충기로 했다.

어항다목적이용시설정비는 방파제 등 어항기본시설의 정비와 발맞추어 어항空間의 다목적 이용을 꾀하기 위한 시설, 이를테면 어민주택용지, 주차장의 조성, 정비, 遊漁시설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또 어촌再開發해안정비는 海岸保全시설의 정비와 함께 土地造成을 실시, 어민주택用地등의 확보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 2가지 프로젝트는 NTT 株式拂下收入을 운용하는 사업으로 그 가운데 A타입으로 불리는 것으로 開發利益償還型의 무이자貸付 제도이다.

이 제도의 경우는 프로젝트事業, 이를테면 토지造成이나 遊漁事業등으로 收益이 나오는 公益사업으로 하고 20年상환(据置기간 5年)이다.

A타입의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모두가 事業化 되도록

인정된 것은 아니고 각 省庁에서 제안된 것 가운데 아이디어가 좋은 것만 選拔된다.

NTT사업의 B타입은 国費償還型으로 불리는데 通常의 公共사업에 편입되는 것으로서 보조금부담 상당액이 대부되고 10년동안 상환(据置기간 5年) 된다.

水産분야 B타입은 지역활성화, 어촌어장긴급정비개발사업으로서 이것은 연안지대의 긴급하고 또 중점적인 정비에 따른 지역의 활성화대

책사업이며 漁港사업, 연안정비사업, 해안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312억엔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하나 리조트地域·어항어촌종합이용 정비촉진사업으로서 종합保養지역 정비법에 근거한 리조트애리어안에 어항시설, 어항이용조정시설, 広域어항어촌의 도로정비를 종합적으로 實施하는 것으로서 4억엔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C타입은 民活型으로 불리는 것으로 民活사업에 開發은행, 北海道東北公庫, 沖繩公庫가 용자, 15年상환(거치 3年)하는 것이다.

第 8 次 漁港整備사업 開始

日, 大 규모 合同會議 열어 對處

일본의 全国沿岸漁業 振興 開發協會와 全国沿岸漁業促進協議會는 지난 9월 東京의 코프빌딩에서 1988년도 沿岸整備사업 등 예산대책 合同會議을 열어 내년도는 第3次 沿岸整備가 스타트하는 외에 新沿岸漁業構造改善과 栽培어업促進등도 새로운 構想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연안어업에 있어 중요한 해임을 널리 알렸다.

이로 인해 同 會議에서는 豫算전액확보를 위해 앞으로

도 강력한 운동을 추진할 것을 결의, 확인했다.

더우기 88년도는 제8차 漁港정비사업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한데 10월下旬에는 全国漁港協會와 漁港議員연맹, 沿岸整備協議會와 관계国会議員이 제휴하여 대규모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沿岸振興協會 會長縣인 宮城縣의 水産 林業部長이 「沿岸漁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新技術도입으로 한차원 높은

「키우는 어업의 추진」이 긴급한 과제가 되어 있다. 연안어업의 냉혹한 정세와 함께 그 주요성을 강력히 호소해 나가고 싶다」고 인삿말.

또 宮原 全国沿岸漁業振興協會長은 「沿岸整備 예산은 당초 1兆엔을 요청했으나 地方의 요구나 다른 公共관계로 6,000억엔에 머물렀다. 이것은 사업추진에 겨우 겨우 자랄까 말까하는 액수로 이것이라도 全額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어항협회도 거들어서 漁港·沿岸

整備사업이 一体가 되어 정부, 国会에 강력히 호소해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來賓으로서 竹山自民党 水産部会 副部長이 「來年度는 新規로 海洋牧場の 實現등도 포함되어 公共사업으로서는 제1위의 17.8%의 증액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단백질 안정공급을 위해 沿岸整備 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다음 水産庁의 今村開發課長, 針木振興課長 補佐가 88년 예산요구내용을 설명했다.

는 것이다.

揚陸岸壁에 스스럼없이 모터보트와 요트등이 정박할 분아니라 가까운 公衆변소에서 화장지를 빼가기도 하고 심한 것은 토요일이 이 漁港의 公휴일임을 기화로 揚陸, 選別場에서 취사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것이다.

이 漁港의 어시장은 三浦市가 관리하고 있는데 同市の 어느 간부는 「이러한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레저族과 함께 쓰다니 말이 안된다. 國民의 血稅로 건설된 特3 漁港이 이렇게 되다니 말이 안된다」고 흥분하고 있다.

이 魚市場은 市가 漁港은 神奈川縣이 관리하고 있고 岸壁에 「이 岸壁은 県漁港管理條例에 따라 어선이 어류등을 揚陸하는 암벽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요트나 모터보트 등은 停, 係泊할 수 없다」는 간판이 서있다. 그런데 바로 그 간판앞에서 係船을 하고 있고 「岸壁이나 바다에 汚物이나 찌꺼기 등을 投棄하는 것은 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表示되어 있는데도 岸壁에는 汚物의 산을 이루고 있다.

同漁港은 遠洋다랑어 延繩어선의 전국유수의 揚陸港이다.

레저族에 漁港浸蝕 汚物마구 버려



레저族들의 요트나 모터보트들이 漁港에 무단 停泊하여 汚物을 버리는 등 무질서가 늘어나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特3 漁港인 日本 神奈川縣의 三崎港의 경우 요트나 모터보트에 沾차 浸蝕되고 있어 어항관계자와 이용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다랑어類의 揚陸은 同市場이 창립했을 당시에는 배에서 委販場에 생선을 진열하여 팔고 있기 때문에 다랑어船은 4~5일은 岸壁에 接岸돼 있었다. 그 때문에 언제나 배가 줄지어 揚陸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船上에서 고기 入札이 이루어져 入札이 끝나면 바로 크레인으로 揚陸된다. 그래서 빠르면 하루 만에 揚陸이 끝난다. 지금은 다랑어船의 양륙때문에 滯船이란 現象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그런틈을 노려 요트, 모터보트 등이 스며든다는 것이다.

확실히 현재의 어업은 레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주요 課題가 되어 있으며 특히 三崎港은 首都圏의 한가운데 있는 어항일 뿐 아니라 레저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는 때여서 이런 風潮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特3漁港이라면 대량의 水産物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큰 使命이 있는데 이를 前提로 레저對策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가 주요 과제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特3어항인 三崎港이 國家의 엄청난 援助를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는 소리조차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8 차計劃수립에 總意모아 伊勢市서 全國漁港大會

제39회 全國漁港大會가 10월 22일 全國漁港協會 주지로 三重県과 三重県 漁港協會 후원으로 三重県伊勢市の 三重県營體育館에서 全國의 漁港 관계자 3,100명이 參加, 盛大하게 開催될 예정이다.

이번 大會의 提出議案은 ① 劃期的인 第8次 漁港整備 장기계획의 수립 ② 漁港정비 사업의 88년도 예산의 증액

확보, ③ 漁港환경정비 사업의 확충, ④ 第4次 海岸事業 5개년계획의 촉진과 88년도 예산의 증액확보, ⑤ 어항행정이 더한층 원활화 하도록 漁港法の 改正 등의 5개안인데 주요의안은 제8차 어항정비 장기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 더우기 이를 뒷받침할 어항법의 일부 개정 등이다.

北海道, 颱風피해 30億 肉迫

長崎県水産庁의 集計로는 12号颱風被害는 지난달 10일 현재 260억엔에 이르렀다.

이에 의하면 水産關係로는 共同利用施設 475件에 4억 3,300만엔, 非共同利用施設 467件 61,300만엔, 어선 2,051척 12억 2,800만엔, 어구 221件 4억 4,400만엔, 양식시설 926件 11억 300만엔, 양식시설 926件 11억 300만엔이다.

한편 北海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에 걸쳐 北海道 西쪽을 통과한 颱風 12号와 低氣圧에 의한 피해가 계속했는데 被害상황은 다음과

같다.

어선침몰, 유출이 464척 5억 400만엔, 破損 1,099척 9억 2,300만엔, 共同利用施設 276件 6억 1,600만엔, 기타 시설 731件 3억 3,000만엔, 어구피해 687件 3억 3,200만엔, 기타피해 497件 2억 7,400만엔으로 총계 29억 8,352억엔에 이르렀다.

그런데 長崎市는 이 颱風으로 防波堤가 파괴되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는 지금까지 없었던 큰 天災로 빠른 復旧가 요청된다고 관계자는 입을 모으고 있다.